

**날짜:** 11 아브 5785 (8 월 5 일, 2025)

**토라 문:** 간구하다

**주제:** 참된 겸손

신명기 3 장 24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노이 여호와여, 당신께서 당신의 크심과 권능의 손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나이다.” 여기서 “여호와”(יהוה)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며, “엘로힘”(Elohim)은 엄격한 정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 두 속성의 이름이 함께 나타나시며 마치 상충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미드라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두 번에 걸쳐 모세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비교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는 아브라함이 얻은 공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창세기 22 장 1 절에 지극히 존귀하신 전능자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회답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는 말씀은 아브라함께서 준비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직의 명예를 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시에 왕권의 명에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이츠 요세프(Eitz Yosef)의 기록은 제사장직과 왕직은 모두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자기 희생, 극단적 헌신, 그리고 선하신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전제 조건을 스스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이 직무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직을 받은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를 정검합니다. 시편 110 편 4 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맹세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창세기 14 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에 대해서는, 창세기 14 장 17 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으니... 샤베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아갔다.” 히브리 성언으로 “שָׁבַע”(shaveh)\*\*는 “동등한” 또는 “같은 마음으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명의 강력한 왕들을 상대로 한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모세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기를 소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 장 4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명예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권의 명에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같은 회답을 드렸었고, 아브라함이 얻은 공로를 자신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단지 그가 제사장으로도 간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탈무드 제바힘(Zevachim) 101b 에서 논쟁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의 소망이 제사장직과 왕직을 후손 대대로 이어 나가는 공로까지 받기에 마땅한 것인가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탄나 데베이 엘리아후 라바(Tanna Devei Eliyahu Rabbah) 제 31 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자신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교만함을 드러냈다고 꾸짖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러한 고집을 오만함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히두세이 하림(Chidushei HaRim)은 사울에 대한 미드라시가 내린 교만함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숨었고, 그 존중받는 위치로부터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22).

히두세이 하림은 어쩌면 그 겸손조차도 오만함의 흔적일 수 있다고 단정합니다. 오만함은 자아의 주장인 것이고, 진정한 겸손은 여호와와 말씀에 자아와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위에 오르라고 명령하신다면, 참된 겸손은 그 위치의 명예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명령에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와 뜻을 거스른다는 의미로서 오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겸손이란, 모세가 보인 겸손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겸손하였다”(민수기 12:3). 그런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지도자적 책임의 자리라도 기꺼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왕권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된 겸손이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 말씀 곧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뜻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리로 불편하게 올라가야 하는 것일지라도 진정 겸손한 자임이 증거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일 뿐입니다.

### 샬롬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호와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